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855-865,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855

멀티미디어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변화 연구

정혜승[1*]
[1]한국영상대학교 유아교육과

Study on Process of Changes of Thinking and Experience Through Early Childhood Multimedia Education

Hye-Seung Jung[1*]
[1]**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College of Media Arts**

요 약 본 연구는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과 사고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멀티미디어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변화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2년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주 동안 7차에 걸쳐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 소그룹 토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영역분석과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 교육을 통해 기존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안목과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에게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아들이 교육현장 이외의 곳에서 많은 멀티미디어를 접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관하여 멀티미디어와 유아교육을 연결시키지 못하였으며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에 관한 수업을 받으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occurred during the early child hood multimedia education in order to understand experiences and though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early child hood multimedia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changes of insight and awareness on the existing multimedia through multimedia education. Secondly, regarding providing multimedia to early chil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alized that early child will experience various multimedia in addition to educational sites and it is inevitable. Thirdly, in relation to the classes related to multimedia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not be able to connect between multimedia and early child education and they felt burden to use them for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Lastly, a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d that their negative thoughts on multimedia were changed to positive through the education on early child hood multimedia education, they required detailed education on multimedia.

Key Words : Multimedia, Multimedia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1. 서론

멀티미디어는 과학의 발달 및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말부터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체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멀티미디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 분야에서 관심과 활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1]. 유아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의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따라

*Corresponding Author : Hye-Seung Jung(Korea College of Media Arts.)
Tel: +82-44-850-9857 email: helloagnes@naver.com
Received January 8, 2014 Revised (1st February 3, 2014, 2nd February 4, 2014) Accepted February 5, 2014

유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침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의 여러 종류의 매체를 확보하고 이 매체들을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능력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교육은 그야말로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고, 더불어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2].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여러 매체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유아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사진, 융판과 같은 전통적인 교수매체에서부터 VCR,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유아의 개별성과 특수성, 발달적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3].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미디어를 시간과 장소, 교육방법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4].

멀티미디어 교육은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고, 더불어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2]. 컴퓨터가 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컴퓨터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제시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 컴퓨터나 CD-ROM 타이틀 등을 이용한 학습활동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들로 인해 멀티미디어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유아로 하여금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며, 유아의 흥미 유발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용될 가치가 매우 높다[1]. 교사는 멀티미디어와 더불어 정보 통신 기술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후세가 지식을 부릴 수 있고,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창조, 이를 통한 생활 과제의 처리능력, 소위 정보능력 또는 정보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5].

멀티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주로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으로 유치원에서의 컴퓨터 현황분석이나 컴퓨터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와 컴퓨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고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컴퓨터 교육의 실태, 유아발달과 컴퓨터 활동의 효과, 컴퓨터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멀티미디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컴퓨터 활동의 영역운영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컴퓨터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유아교육에서의 컴퓨터, 교사들의 유아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인식[6]에 관한 연구나 유아 컴퓨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7]와 같이 교사와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가 등장한 1988년 이후 1996년까지 교사교육 및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한편도 없었던 반면 인터넷 관련 연구는 1999년 처음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듬해인 2000년부터 교사교육과 교사 인식에 관련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8]. 교사교육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관련 연구가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기 연구에 비해 인터넷과 관련된 연구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도 멀티미디어와 관련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인터넷 사용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인식[9], 유치원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조사[10]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비교사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교육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유아교육에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주로 유아이다[11].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를 위한 연구, 특히,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전자미디어 이용 관련 현황[12]이나, 가정에서의 미디어 경험과 유아 창의성 간의 관계[13]에 대한 연구, 로봇 활용 수업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14],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의 과학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15]에 관한 연구, 유아 멀티미디어 예비교사교육에 관한 델파이 연구[16]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로봇 등의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인해 지식 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목적도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

처 할 수 있는 능력 발달에 강조를 두고 있다. 특히 인터넷 보급과 정보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7,18]. 컴퓨터의 갑작스런 보급경향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컴퓨터 사용 효과에 관련된 교육적 문제들을 고려해볼만한 여유를 주지 못했으며, 유치원 교사들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정립될 수 있는 뚜렷한 교육목적이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원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19]. 200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가 되었던 멀티미디어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교육용 로봇, 가정용 로봇 등의 등장으로 교육 또한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접목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 교사교육이나 기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장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교사교육 특성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잘 부합되지 않아 교사들이 실제로 현장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교육을 잘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함에 따라 미래의 교사가 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17,20,18].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교육공학이나 유아와 컴퓨터 등의 과목에서 멀티미디어의 한부분인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CD-ROM 타이틀, 파워포인트 활용법 등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도 기존의 강의 내용을 답습하거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보면 컴퓨터 활용방법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19].

유아 멀티미디어교육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활용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후에 교사가 되었을 때 유아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유아교사 시절부터 올바른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활용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멀티미디어교육 수업을 수강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 멀티미디어 교육을 수강하면서 나타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유아멀티미디어교육 수업과정 중에 예비유아교사들이 겪게 되는 변화과정과 경험을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을 이해하는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가?
2. 유아멀티미디어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멀티미디어교육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K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60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1학년 2학기에 유아와 컴퓨터 과목을 수강하였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유아멀티미디어교육을 수업과정으로 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 학기 동안 유아멀티미디어 교육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조별로 생각 모으기를 통해 이야기해보고 이후에는 2주에 한번 저널쓰기 활동을 하여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느낌 등을 저널에 기록하였다.

2.2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

2.2.1 연구기간 및 연구절차

연구기간은 2012년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주이며 유아 멀티미디어 과목의 수업 기간 중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 소그룹 토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전에 유아멀티미디어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예비유아교사들이다.

연구는 강의가 시작된 2012년 8월 27일에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1주차부터 반성적 저널쓰기와 조별 그룹 토의를 실시하였다. 반성적 저널 쓰기와 조별 그룹토의는 총 7번 실시하였으며 수업이 진행 된 후에 30분정도 시간을 주어 토의와 저널쓰기를 하였다.

[Table 1] instruction and research procedures

Weeks	Day	Contents	Data Form
1	9.03	The concept and the nee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multimedia, theoretical base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2	9.10	Computer utiliz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thical multimedia educational course of study	
3	9.17	Multimedia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actual I - robot-based education (e-Learning)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4	9.24	Multimedia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actual II - internet	
5	10.08	Multimedia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actual II - CD-rom title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6	10.15	Simulated using multimedia teaching	
7	10.22	Simulated using multimedia teaching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8	10.29	Simulated using multimedia teaching	
9	11.05	Simulated using multimedia teaching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10	11.12	Efficient utilization of multimedia and real - the theory	
11	11.19	Efficient utilization of multimedia and real - the real (photo albums, teaching materials, digital photos, etc.)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12	11.26	Computer utiliz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3	12.03	Design and Development of Children's Multimedia Instructional Media I	Small group discussion and journal
14	12.10	Design and Development of Children's Multimedia Instructional Media II	

2.2.2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수업 후에 느낀 점 등을 2주에 한번 저널형식으로 총 7차에 걸쳐 작성하도록 하였다. 2주차의 수업 후에 각 조별로 15분에서 20분정도의 시간동안 2주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여 토론을 하였다.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저널을 작성하였다. 2주에 한번 작성된 저널은 매 시간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저널을 수집하여 읽고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된 저널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실시한 생각 모으기를 포함하여 개인당 총 7회분의 저널이 수집되었으며 저널의 분량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저널이 A4용지 한 장을 넘지 않았으며 전체 수집된 연구 자료는 총 A4용지 417장 분량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저널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파일로 텍스트화 하였으며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영역분석과 주제분석[21]을 함께 사용하였다[22]. 영역분석은 분석 방법에 따라 수집된 저널 자료를 제목을 선정하여 분류하였고, 주제 분석은 저널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생각을 찾아내어 주제를 추가하고 분류하였다.

질적 연구는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는 방법은 자료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게 된다[23]. 연구자들은 저널을 읽으면서 내용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24]을 반복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검증과정을 거쳐 자료수집, 분석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해석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저널의 내용에 나타난 주제를 선정한 후 저널의 내용과 주제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보조자 2인과 교차하여 키워드를 선정한 후 반복된 토론과 해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을 이해하는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

4.1.1 안목이 필요한 멀티미디어 활용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단순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찾거나 흥미를 위한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멀티미디어는 하나의 기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교실에서 유아들과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동화를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매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무한한 쓰임을 예비교사들은 인식하고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뒤따랐다. 멀티미디어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목적이 아니고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 교수자료를 제작한다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여러 멀티미디어 자료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어떠한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과 적절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선정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과목을 수강할 때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과 단기간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모의수업을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자체로 계획적인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학습에 장단점은 모두 고려하고 그에 맞는 멀티미디어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가졌다.
> (하○○, 2012. 09. 10)

> 모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중략.....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에 맞는 수업자료를 찾아서 멀티미디어로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으며 내가 만든 자료가 과연 도움이 될지도 걱정이 앞섰다.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효과를 주면 좋을지 글씨자료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는 사진자료 혹은 동영상 자료를 잘 찾았는지도 확인하고 매번 수정하면서.....
> (민○○, 2012. 11. 05)

>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을 유아에게 접목시켜 모의 수업을 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웠다. 처음에는 그래도 피피티를 다루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통해 유아와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여러 활동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자세하고 유익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한○○, 2012. 10. 08)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 개념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수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평소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혼란과 멀티미디어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도 하였다.

> 아이들에게 멀티미디어 수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처음엔 잘 모르겠어서 계획안 쓰기도 어려웠다. 또 우리가 항상 쓰던 멀티미디어와는 다르게 유아에게 적용될 것이라 고려해야 할 것도 많아서 생각을 더 해야 할 것도 많았던 것 같다. 유아멀티미디어란 과목 자체를 처음 배워보는 거라 이론도 어려웠다.
> (변○○, 2012. 09. 10)

> 멀티라고 생각해서 컴퓨터, TV, 등등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멀티라고 해서 무엇을 배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장단점과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도 어려웠다. 그리고 멀티를 이용해서 계획안을 쓰는 것도 어려웠다.
> (김○○, 2012. 09. 10)

예비교사들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멀티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사용법을 교육에 접목해야 함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주어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멀티미디어를 교육적 측면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4.1.2 꼭 멀티미디어가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유아들은 수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로 인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대해 많은 경고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가 유아에게 제공되었을 때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멀티미디어를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반대함. 왜냐하면 유아들은 뛰어노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멀티미디어는 그런 일을 방해한다. 게임 때문에 밤을 새고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반대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때문에 사회·정서적으로 유아들이 고립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V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만 빼고 본 아이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아이는 고립될 수도 있다.
> (임○○, 2012. 9. 24)

> 유아들에게 과도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멀티미디어에만 의존 할 수 있고 어린 나이에는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이○○. 2013. 9. 24)

일상생활에서 멀티미디어 기기 없이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금지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이 뉴스나 연구를 통해 보고되기도 한다. KBS 예능프로그램 인간의 조건에서는 멀티미디어 기계 즉, 핸드폰, 텔레비전 없이 살아가는 개그맨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한 적이 있었다. 핸드폰이 없으니 약속도 잊고 간단한 메모

를 할 때에도 메모지와 볼펜이 꼭 필요했다. 심지어 한 개그맨은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몰라 수소문해서 아버지와 통화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을 멀티미디어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비교사들 또한 이런 점을 우려하여 유아에게 멀티미디어 제공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와 그리고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사용 실태를 보아 예비교사들은 유아들이 교육현장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3 나쁜 멀티미디어, 좋은 멀티미디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수업을 수강하며 학기 초에 가졌던 유아에게 멀티미디어를 제공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멀티미디어 제공을 반대했던 한 학생은 멀티미디어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멀티미디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선생님이 편하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아이들도 즐겁다/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 아이들이 근접경험으로 인해 생각이 자라고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 준다.
> (오○○, 2012. 11.05)
>
> 유아들에게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면 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폭 넓게 학습 할 수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흥미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한다.
> (변○○, 2012. 11.05)

또한 미래사회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멀티미디어의 접촉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이 변화된 예비교사도 있었다.

> 멀티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무한대로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 유아들에게 신속히 알려 줄 수 있는 점이 좋고, 또한 유아들은 흥미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실감나는 자료를 통해 체험을 할 수 있다. 요즘은 점점 발달해가고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는 기본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도 필요로 하기에 적당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 (남○○, 2012. 11. 05)
>
> 앞으로 아이들이 크면서 멀티미디어를 많이 접하게 되고 써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지금 할 수 없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당황해 할 수도 있고 어려워 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모여주고 접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김○○, 2012. 09. 10)
>
> 앞으로 우리 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회이다. 어릴 때 이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중략..... 컴퓨터 교육 같은 미래 산업에 더 절실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없다면 훗날 아이가 더 크게 호기심을 가져서 제대로 된 교육과 예절을 배우지 못해서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유해 매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많으며 아이의 컴퓨터 시간량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제를 걸어놓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이○○, 2012. 09. 24)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의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에서 현실에서의 멀티미디어 사용해 대해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인식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업에 적용될 교수 매체로서의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4 기술을 익히니 시각도 생기네요.

예비교사들은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수업을 경험하면서 처음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을 접했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교육적 요소로의 사용에 대한 불안감 등이 유아멀티미디어교육 수업과정을 달라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 모의수업을 준비하는 것과 또 우리 ppt 뿐만 아니라 유아 수업용 ppt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계획안 작성이라던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준 실제수업의 예로 나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역시 모의수업을 어려명이서 유아가 되어서 하는 수업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 (문○○, 2012. 11. 05)
>
> 처음에는 멀티라는 말에 그냥 거부감이 들었는데 한 주 한 주 배워가니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운 과목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첫 수업, 개강하기 전에 공강이 사라져서 싫었는데 시간표에 유아멀티미디어라는 과목 이름을 보고 되게 재미없고 듣기 싫고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략-
> (노○○, 2012. 11. 05)

예비교사들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멀티미디어가 정보제공, 게임, 쇼핑, 친구와의 대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여겼던 생각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6주차 이후 멀티미디어를 적용한 모의수업을 진행하면서 멀티미디어를 하나의 교수매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면 긍정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적용에 대해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멀티미디어 수업을 통하여 적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을 하거나 모의수

업을 통하여 그 방법을 실행해 봄으로서 멀티미디어를 교수 매체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임을 배웠고 유아와 수업할 때 단순히 노래를 틀거나 사진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배웠다. 다음 학기나 졸업 후 현장에서도 멀티미디어를 막 쓰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며 쓸 수 있을 것 같다.
>
> (성○○, 2012. 10. 22)

>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직접 만들어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흐름과 방식을 알게 되었다.
>
> (강○○, 2012. 11. 19)

>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을 배우기 전에는 멀티미디어란 그냥 항상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을 배운 후에는 그냥 컴퓨터만이 아닌 유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ppt 같은 것도 유아들 수업에 맞도록 하는 것(만드는 것)도 많이 배웠고 .... 생략
>
> (변○○, 2012. 11. 19)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수업과 멀티미디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관을 나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하는 수업에 관심이 생겼다. 내가 배운 것이다 보니 저런게 멀티미디어 수업인가 보다 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유아교육은 딱딱한 수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이다 보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
> (이○○, 2012. 10. 22)

> 유아 멀티를 배우기 전에는 유아에게 도움 되는 멀티가 동영상, PPT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렇게 적은 것을 왜 배우나 싶었는데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자료도 많을뿐더러 우리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지금 나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것은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몰랐던 내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며 전과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 (황○○, 2012. 11. 05)

> 유아 멀티교육이라고 해서 처음엔 중고등학교때 배우던 정보와 컴퓨터 같은 수업인줄 알았는데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임을 배웠고 유아와 수업할 때 단순히 노래를 틀거나 사진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배웠다. 다음 학기나 졸업 후 현장에서도 멀티미디어를 막 쓰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며 쓸 수 있을 것 같다.
>
> (성○○, 2012. 11. 05)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자신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름을 느끼고 유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멀티미디어가 있을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의 활용방법에 대한 배움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 자신들 스스로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멀티미디어를 대하게 되었다.

4.2 유아멀티미디어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4.2.1 멀티미디어 사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유아멀티미디어 교육 수업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정의내리고 멀티미디어 적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을 배우면서 교육과정안에 멀티미디어를 포함 시키고 유아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생기면서 교사로서 멀티미디어를 교육적으로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배우기 전에는 멀티미디어를 유아한테 수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
> (강○○, 2012. 11. 19)

> 유아멀티미디어 교육은 배우기 이전에는 모의수업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계획안 작성과 수정은 귀찮은 일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이 수업시간에 서툴게라도 내가 직접 작성하고 내가 직접 수업을 하게 되어서 다음번엔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모의수업에 다른 아이들이 발표할 때 내가 대답해줌으로써 대답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던 나의 모습을 고칠 수 있던 점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든다. 계획안을 더 철저히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 (고○○, 2012. 11. 19)

예비교사들은 수업을 수강하기 전보다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더욱 현실적으로 수업에 구현하고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멀티미디어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염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멀티미디어 수업을 배우기 전에는 '우와 쉽겠다. 많이 접해본 분야니까 쉽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생소한 만큼... 내가 생각했던 수업과는 달랐따. 그리고 모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PPT를 처음 만들어 보았는데 아이들은 쉽게 금방 만들었지만 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PPT의 슬라이드 쇼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정말 막연했다.

(이○○, 2012. 11. 19)

많이 접해보지 못한 유아 관계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고 해보지 못한 컴퓨터 작업을 처음 해보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2012. 11. 19)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업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컸다. .....중략.....사이트맵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 2012. 11. 19)

또한 교육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분류하거나 이를 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예비교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예비교사가 어려웠던 점으로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고 교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 수업을 경험한 후에 생각과 지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싶어 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루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연계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교사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현장과의 연계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멀티미디어를 특별한 도구가 아닌 하나의 매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막연한 개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하고 있었다.

유치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CD-ROM이나 PPT등의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응용할 수 있도록)

(김○, 2012. 11. 19)

PPT효과(소리, 특수효과, 동영상 삽입, 넘기기 효과 등) 많이 배우지 못해서 더 배우고 싶고 자세히 알고 싶다. 또 멀티미디어를 유아들에게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윤○○, 2012. 11. 19)

멀티미디어에서 수업을 모두 ppt로 수업해서, 다른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을 더 배우고 싶어요.

(정○○, 2012. 11. 19)

5. 결론

본 연구는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의 수업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고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 교육을 통해 기존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안목과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유아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며 교육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하나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목적이 아닌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 교수자료를 제작한다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뒤따랐다. 또한 유아와 컴퓨터 교육 과목을 수강할 때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과 단기간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모의수업을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있어 정보능력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백영균은 정보공학의 시대에 많이 쓰이게 될 멀티미디어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보능력과, 미디어를 구사하는 아동의 새로운 창조적인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 멀티미디어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멀티미디어를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유아가 창조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25]. 미래사회에서의 멀

티미디어에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한 능력은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에게도 필요한 능력이겠지만 미래 사회를 살아갈 유아들이 더욱 가져야 할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의 정의를 새롭게 교육적인 멀티미디어의 정의로 다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항상 사용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혼란과 멀티미디어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적인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예비교사들이 근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를 주어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에게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아들이 교육현장 이외의 곳에서 많은 멀티미디어를 접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유아들이 멀티미디어에의 노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멀티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시대적 요청이므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김은정[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수용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처음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업을 시작할 때 예비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비유아교사들은 컴퓨터 교육 수업을 수강한 후 유아에게 멀티미디어를 제공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또한 피할 수 없는 멀티미디어의 접촉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이 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멀티미디어는 급격한 발전을 이후며 컴퓨터 교육으로만 국한되었던 교육이 미디어 교육, 멀티미디어 교육, 테크놀러지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소극적인 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으로 미디어는 유아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26]. 멀티미디어를 유치원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유아에게는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주고 교사에게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수업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므로 그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 오늘날 유아에게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관하여 멀티미디어와 유아교육을 연결시키지 못하였으며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현대 유아교육기관에 들어오게 되는 유아와 교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테크놀러지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란 세대로 테크놀러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특별한 교육 없이 미디어를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세대이다[27]. 백영균은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미디어에 대하 알고 있어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5]. 전통적인 시청각 미디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태도 및 신념과 동기 부여라고 언급하고 있다[28-32]. 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 그리고 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접하게 될 정보의 형태 및 표현방식은 지금까지의 인쇄매체나 방송 통신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양식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적합한 예비교사교육이 필요하다[27].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는 스스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테크놀러지 세대임을 인식하고 테크놀러지에 대한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에 관한 수업을 받으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양영란은 멀티미디어 활용 실태에 대해 멀티미디어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컴퓨터 활용연수나 직전 교육을 통해 교사의 정보화 자질을 우선 길러야 하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6].

현행 예비교사교육에서는 교사의 파워포인트 제작 방법 등 테크놀러지 사용 능력에 국한된다는 점이며[33], 이는 예비교사교육이 교사로 하여금 교육현장에서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34-36,32,37].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유아 멀티미디어 관련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교사교육이 현장에서 교사 위주의 행정 업무 지원 측면의 교육이 아닌 교실에서 유아와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방법이 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관련 수업

은 유아의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예비유아교사가 멀티미디어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im Kyung Chul.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Seoul: Hakjisa. 2008

[2] Myung Sook Park. Multimedia training for teacher training.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econdary School Principals. 81, 55-66. 1997.

[3] Ahn Gyoung-Suk, Lim Soo-Jin, Kim Jeong-Ju.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Using Media in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5*, 125-146. 2010.

[4] Eul Young Kwon.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et to Chil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2000.

[5] J. W. Cho. The direction of multimedia teaching assignments, ICT in education and training industry, Multimedia Training Support Center. 1997.

[6] Ye-Hwa Jun. Compu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tion about Computer Activities. *Inje Journal, 8*(2), 555-564. 1992.

[7] H. S. Jung. The basi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early childhood research computer. *Journal of Sangji University affiliated colleges, 14*, 207-227. 1995.

[8] Hyo-Seung Jang. The tendency of child studies about multimedi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9] Jin, Eun young. Pre-school teacher's recognition on the internet use by an young children and its application as the educational mediu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5

[10] Eun jung Kim. Research of Teachers Recognition and Survey About Using Multimedia in Kindergarten Schools. Unpublised master's degree do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2

[11] Choon Ja Lee. A Study on Multimedia Utilization Plan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Journal, 6*, 121-136. 1999.

[12] Min Jung Kim, Eun Ju Park, Gab Soon Kim. The Differences in the Practice Situations Related to the Use of Children`s Electronic Media and Mothers` Perception according to Ag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46-268, 11(4). 2007.

[13] Yu, Eun-Young, Relationship between Media Experience at Home and Children's Creativ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2013.

[14] Jong Hyang Lee, Jae Eun Jung, An Analysis on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ness of Robot Learning(R-learning), *Korea Research education issues, 153-171, 30(1), 2012.*

[15] Yoo Ku-J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 by using smart phones and tablet PC and its effects on scientific thinking of young children.*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3), 85-110. 2012

[16] Eun Mee Lim. A Delphi Study on Pre-servic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of Multimedia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191-212. 2013.

[17] Sung Hee Park. The effects of Multimedia Case-based Learning on Preservice Teachers`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4*(5), 19-28. 2011.

[18] Kyung Chul Kim, Ku Jong Yoo. A Study on the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Computer Education in Kindergart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239-266. 2001.

[19] Eun Joo Kim. A Study on Practical Knowledge: The Implication on Teacher Education and Problem.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rion, 27*(4), 27-46. 2010.

[20] Seung Hee Kang, Dae Hyun Kim.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Preservice Teachers` Critical Thinking Ability. *Journal of Fish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08-121. 2006.

[21]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Seoul: Textbooks Ltd.. 1980.

[22] Kim Kyung Chul, Chang, Youn Ju, Kim Eun Jung. The Awareness of Pre-Teacher's on Kindergarten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6*(4). 123-143. 2010.

[23] Jea Sik Cho, Chang Soo Hur, Young Chun Kim. Validity Issues for Qualitative Researchers in Educational/Curriculum Studies: Understanding Different Approaches .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1), 61-95. 2006.

[24] Eun Ha Lee, So Young Lee. An Inquiry into the

Drawing and Journal Writing Activ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Ecology Research, 10*(1), 127-150. 2011.

[25] Y. K. Back. Teacher education and the role of multimedia era.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Secondary School Principals, 73, 46-55. 1995.

[26] Young Lan-Yang. Actual Condition and the Practical use and the Analysis on Multimedia of Kindergarten. Unpublised master's degree dossertation, C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4.

[27] Zevenbergen., R. Digital natives come to preschool: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practice.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8*, 19-29. 2007.
DOI: http://dx.doi.org/10.2304/ciec.2007.8.1.19

[28] Young Sil Kim, Na Rim Kim.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on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and Anxiety Toward Computer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4*(3). 101-11. 2003.

[29] Ertmer, P. A., & Ottenbreit-Leftwich, A. T. Teacher technology change : How Knowledge, confidence, beliefs, and culture intersect. *Journal of Research on Teaching in Education, 42*(3). 255-284. 2010.

[30] Parette, H. P., Quesenberry, A. C., & Blum, C. Missing the boat with technology usage in early childhood settings: A 21st century view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 335-343. 2010.
DOI: http://dx.doi.org/10.1007/s10643-009-0352-x

[31] Cullen. T. A., & Greene, B. A. Preservice teachers' beliefs, attitudes, and motivation about technology integ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45*(1), 29-47. 2011.
DOI: http://dx.doi.org/10.2190/EC.45.1.b

[32] Eun Mee Lim. A Delphi Study on Pre-servic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of Multimedia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191-212. 2013.

[33] Hyun Joo Park, Heui Sook Park. Step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Service Computer Training for Kindergarten Teachers. *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1), 229-244. 2003.

[34] Shin Young Kang , Hae Ik Hwang. The Development of an On-Line Teacher Education Program on the Use of Computers with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5(*6), 87-110. 2005.

[35] Sun Young Kim. The Evaluation of In - 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Incorporation the Computer into the Early Childhood.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8*(1), 21-44. 2001.

[36] Young Hee Kim. The Design of the Educational Computing Course for 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8*(3), 19-28. 2005.

[37] Koehler, N. J., & Mishra, P. What is technalogo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ontemporary Education Journal, 37*, 209-218. 2009.

정 혜 승(Hye-Seung Jung) **[정회원]**

- 2010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전공)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영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교육, 유아미술, 유아멀티미디어